

지역 매아리

부안고려청자유적지

세계유산 등재 세미나 개최

천 년 전통 고려 삼강청자의 고장 부안에서 오는 27일 (재)전북문화재단연구원 주관으로 '부안고려청자유적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5~2017년까지 3년간 진행해 온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학술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보고서 기안을 작성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함으로써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이다.

세미나는 부안군청 3층 회의실에서 한정화 부안청자박물관 학예사의 '부안고려청자유적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경위와 현황', 김규정 전북문화재단연구원장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보고서 기안' 등의 주제발표가 있다. 주제발표 이후 원광대학교 최완규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유네스코 야생동물보호센터 허근 사무총장, 호남문화재단연구원 윤영환 원장, 부안문화원 김원철 원장, 군산대학교 박광진 교수, 충북대학교 이종민 교수, 원광대학교 문이화 교수, 전주대학교박물관 박현수 학예실장 등이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보고서 기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군 ·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2억원 투입

정읍시는 올 한 해 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발전 가속화와 농촌지역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군도 ·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관련해 시는 2018년에도 60억원을 투입하여, 21개 노선 약 9km의 확포장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대산~상산선(군도12호) ▲승부~반곡선(군도8호) ▲검단선(칠보203호) ▲한화선(북면201호) 등 도로개설을 완료했다.

또한 시는 2019년도 군 ·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42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17개 노선 9.2km를 개설 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육리~상서선(군도20호) ▲진흥~오주선(군도13호) ▲소학선(갑곡106호) ▲용흥선(고부311호)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낙후된 농촌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적인 예산투입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예산 확보는 지역발전 위한 필수요소”

부안군, 공모사업 67건 국도비 585억원 확보... 지난해 432억원 대비 35.4% 급증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18년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과 전북도 주관의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총 6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58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32억원 대비 35.4% (153억원)나 급증한 수치다.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격포항 배후마을 권역거점 개발사업 국비 70억원(총사업비 100억원), 어촌 뉴딜 300사업 국비 159억원(총사업비 227억원),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85억원(총사업비 221억원), 내기지구 농어촌융복합 개발사업 국비 42억원(총사업비 60억원), 주산

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국비 28억원(총사업비 44억원),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 국비 14억원(총사업비 20억원) 등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국고보조사업 지원 방식이 지자체간의 경쟁을 통해 해당 사업에 경쟁력을 갖춘 지자체가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공모사업의 비중이 점점 증가할 것 대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부안군은 공모사업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 홈페이지를 수시 모니터링 해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공모사업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사업별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중점 관리한 결과 공모사업 선정 및 국도비 예산 확보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부안군은 올해 국가예산 4300억원을 달성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공모사업 증가가 이를 달성하는데 '키맨(keyman)' 역할을 수행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공모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는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사상 최대 국가예산 확보 등을 바탕으로 소득 UP, 행복 UP, 사람 UP 등 부안-3UP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민이 뽑은 올해의 10대뉴스... 1위 '지방선거혁명-유기상 군수 당선'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지난 21일 올 한 해 지역을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고창 10대 뉴스'는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군청 공무원 내부계시판을 활용해 투표 선정한 결과, 1위는 '6·13 지방선거 혁명-유기상 군수 당선'이 차지했다. 유군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유의 성실성과 진정성으로 목북외 바둑을 다지며 누구도 예상 못한 대역전극을 일궈냈다.

농민혁명의 발상지 고창에서 뿌리 내리자'는 목표로 고창군 최초로 군민 참여형 선거자금 모금 펀드를 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2위는 '무장유승 비격진전회 출도'로 꼽혔다. 비격진전회는 조선시대 최첨단 화약으로 이번 무장유승에서 무더기로 출도되면서 고창군이 호남방어의 요충지였음이 확인됐다. 이밖에 ▲불타는 차량사 운전자 구한 고창의 의인-택배기사 유동운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슬로시티 발원 ▲'고창 바다권리 찾기 헌법재판 ▲고창 수박유료 스타벅스 입점 ▲

고창, 평창동계올림픽 성화제와 및 봉송행사 ▲인천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 ▲군청 간부회의 공개(시 읽는 간부회의) ▲국내최초 농촌영화제 개막도 올해의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군민과 함께 새로운 고창을 만들기 위해 달려왔다"며 "내년에도 군민이 군수라는 사명감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대한민국 고창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내장산문화광장에 전북 최대 규모 실내형 복합놀이시설 들어선다

40여억원 투입... VR체험 스포츠 시설 등 갖추고 내년 9월 완공 예정

정읍의 사계절 토탈관광 핵심 거점인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전북 최대 규모의 실내형 복합놀이 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지난 21일 내장산국립공원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일환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40여억원을 투입해 어드벤처 복합놀이시설 조성사업(이하 어드벤처 놀이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드벤처 놀이시설은 오늘 착공해 내년 9월 완료될 예정이다. 건축면적은 2,280㎡이다. 실내형 복합놀이를 테마(Thema)로 해서 가족 단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



내년 9월 완료될 예정인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어드벤처 놀이시설.

춘 15종 28개 모험놀이시설을 비롯 VR체험과 스포츠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달 사업대상지 내 지장물 이설공사를 마치고 시공업체를 선정했다.

유진섭 시장은 "미세먼지나 굶은 날씨 등 외부 여건과 관계없이 사계

절 언제나 마음껏 놀고 즐길 수 있는 실내형 복합놀이공간 조성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토탈관광 기반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관광 즐거움, 그리고 감동이 있는 관광정음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 해의 마지막, 희망찬 북소리와 함께’

31일 밤 고창 모양성서 '제야의 북소리' 열려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오는 31일 오후 10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모양성 제야의 북소리' 행사를 고창읍성 앞 잔디광장에서 연다.

이번 행사는 인기가수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각계각층 군민의 새해 소망을 담은 영상 상영, 군민 33명이 참여해 총 33회 희망의 북을 울리는 타고식이 진행된다.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노래 하나 되는 대화합의 장을 위한 '고창군민 대화합'과 정경 고창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불꽃쇼가 펼쳐지며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날 부대행사로 는 참가자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소원지 쓰기가 열린다. 소원지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때 같이 태워질 예정이고, 경제살리기여성회 등 자원봉사단체가 제공하는 뜨끈한 어묵 국물은 한겨울 추위를 달랠 수 있는 별미가 될 전망이다.



행사를 주관한 유제영 고창모양성보존회장은 "군민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고창군민 모두가 새해 희망을 함께 노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북소리 행사에 많은 군민이 함께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해 희망을 담아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민방위 총결산보고회 · 유공자 시상식 가져

정읍시는 최근 '시민이 더욱 안전한 집'을 실현, 2019년은 남북 평화 · 번영의 시대로!란 제하의 2018년 민방위 총결산보고회 및 민방위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시민, 민방위대원, 유공기관 · 단체 임직원,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2018년 주요성과로는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고교생 교육 철회 축구 결의 등 통합방위대세 확립 △2018 남북 · 북미 평화 정상회담 성공 기원 독도사랑 콘서트 개최 등 지원 민방위대 안보활동 △시민 심폐소생술 순회교육 10,000명 실시 △ 노래하는 내장산 귀갑약수, 용혈약수 등 시민 비상식수원 연간 98,550톤(246억 3,750만원 상당) 확보 △민방위 화재대피 및 고공 인명구조훈련 내실화 △아파트 지하대피소 32개소 비상조명등 설치 등 25개 사업이다.

추진과제로는 △시민 비상급수원 부족분 1일 채수량 442톤(5개소) 규모 개발 △민방위실전체험훈련장(민방위 전용교육관) 건립 등이며, 2019년 역점사업으로는 △ '평화 · 통일 · 번영의 봄, 대한(大韓)의 역사를 지켜낸 위인' 민방위 교육 및 시민강좌 △정읍년 심폐소생술 학교 순회교육 △원양새는 언제나 평화통일의 꿈을 꾸다' 지원민방위대 백두산 안보 현장

견학 등 27개 사업이다.

이날 보고회는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동북아 패권경쟁으로 인한 안보위협과 태풍, 대설, 지진, 황사 등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방재 · 구조 · 복구 등 민방위 역량 강화와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민방위 유공자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길은 분단된 국가안보 현실과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다'며,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회담으로 백두대간을 잇고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서 초석을 놓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변명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자 표창 수상자는 △공로단체상 한국산업포럼회(대표 김종호) △여성민방위대 이선심씨, 이명숙씨, 박길순씨, 지역민방위대장 황진성씨, 조민식씨, 민방위교육 강사 조광환씨, 이갑삼씨, 최병문씨, 해병전우회 길봉춘씨, 모범안전자연합회 신만호씨, 목지회 임장옥씨 △공무원 정읍교육지원청 김수정씨, 정읍소방서 강광원씨, 정읍경찰서 이종립씨, 영원면 이현철씨, 농소동 서동민씨, 상교동 김동배씨 등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everal gift set options listed with prices and quantities.